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판 자살극복력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노준희¹, 장수정¹, 김성은^{1*}
¹우석대학교 간호학과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uicide Resilience Inventory-Korean Version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Jun Hee Noh¹, Soo Jung Chang¹, Seong Eun Kim^{1*}

¹Department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어판 자살극복력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방법론적 연구로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북지역 26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준거도구로 Osman 등(2004)의 Suicide Resilience Inventory-25를 이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계수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19문항의 요인적재량의 범위는 .442에서 .767, RMSEA<.08, CFI≥.9로 타당도를 확보하여, 최종 19문항 3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진 한국어판 자살극복력 측정도구(SRI-K)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SRI-K의 Cronbach's alpha 값은 .943이었다. SRI-K는 자살극복력을 측정하는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도구임이 검증되었다. 향후 자살극복력을 측정하는데 SRI-K가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uicide Resilience Inventory-Korean version. Data were collected from 266 university students in Jeonbuk, South Korea. The Suicide Resilience Inventory-Korean version Suicide Resilience Inventory-25 was develop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alph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Suicide Resilience Inventory-Korean version(SRI-K) had factor loadings of the 19 items on the three subscales from 0.442 to 0.767. The three subscales model was validat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MSEA<.08, CFI≥.9). The internal consistency with a Cronbach's alpha was reliable with a total scale of 0.943.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SRI-K has satisfactory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to measure the ability to effectively overcome and to flexibly cope with the suicide risk.

Keywords :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d validity, Resilience, Suicid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3년 사망원인통계[1]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사망자 수가 28.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1.5%) 증가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표준 인구로 계산한 한국의 자살률은 29.1명으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2.1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2]. 특히 최근 몇 년간 10대~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보고되어[1] 청소년과 청년 자살률은 위험한 수준이다.

이처럼 청소년과 청년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획일성', '조급(빨리빨리)성', '권위주의적 경향'과 같은 사회

*Corresponding Author : Seong Eun Kim(Woosuk Univ.)

Tel: +82-63-290-1760 email: fromutos@daum.net

Received October 16, 2015

Revised (1st October 29, 2015, 2nd December 7, 2015, 3rd December 22, 2015)

Accepted January 5, 2016

Published January 31, 2016

문화적 요인과 결부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목표 수준이나 목표 달성의 속도를 현실에 맞추려는 시도는 성취지향 일반도의 사회적 가치관에 의해 방해를 받으면서 10명 중 6명 이상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3], 청소년기에 우울과 자살이 급증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후기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 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가치관 문제, 학업 및 장애, 경제적 문제 등에서 급격한 전환기를 맞게 되며, 미래의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다양한 과제가 주어짐으로써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4-5].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주도적이며 자율적인 행동으로의 갑작스런 전환은 대학생들에게는 내적인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때로는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충동적인 자살 시도의 원인이 된다[6].

청소년기와 청년기 자살의 위험요인으로는 주로 우울, 절망감, 생활사건 및 스트레스, 충동성, 소극적 대처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5-7], 이처럼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찾고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살사망률을 감소 방안이다. 그러나 자살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만큼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버티며 자살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자살의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과 관심도에 못지않게 필요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살 보호요인으로는 건강한 생활습관, 사회적지지, 안정된 대인관계와 자존감[7]을 비롯하여 삶의 만족도[8]나 문제해결 능력[9], 생의 의미[10] 등이다.

자살 보호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념화 작업을 통해 개발된 도구로는 살아있는 이유 측정도구(Reasons for Living Inventory)[11],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자살사고 측정도구(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Inventory)[12] 등이 있다. 그러나 Linehan 등[11]의 도구는 한국형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13-14]로 표준화되었으나, 48개로 문항수가 많으며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만을 자가보고하는 형식이며, Osman 등[12]의 도구는 자살행위와 관련된 긍정적, 부정적 사고의 빈도를 사정하는 것이어서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요인을 사정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최근 이러한 관심과 함께 대두된 심리사회적 개념이 극복력(resilience)이다. 극복력은 탄력성이라고도 하는데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15], 자살 위험요인과 실제 자살 위기 사이에서 완

화와 보호역할을 담당하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16]. 특히, 극복력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삶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 의미를 담고 있어, 청소년과 청년들의 극복력을 키워주는 것이 이들의 자살 충동이나 자살위기를 예방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16]. 이에 Osman 등[17]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효율적으로 자살 위기를 극복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극복력의 개념을 포함하여 내적, 외적, 정서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자살극복력도구(Suicide Resilience Inventory-25; SRI-25)를 개발한 바 있다.

자살 극복력은 사회적, 상황적 맥락의 영향을 받으며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도구 사용 전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국내에서는 자살극복력도구(SRI-25)에 대한 타당도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으나[18], 확인적 요인분석과정에서 제외된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항을 포함시켜 원 도구와 동일하게 25문항으로 자살극복력도구를 표준화하였기에 이에 대한 반복 및 확인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자살 극복력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여 SRI-25가 한국 대학생에게 적용가능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Osman 등[17]의 자살극복력 측정도구(SRI-25)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판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는 편의표출에 의해 전북지역의 4년제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본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표본 크기는 일반적으로 문항수의 4-5배 정도가 바람직하고, 문항분석을 위한 표본크기는 문항 수의 2-10배가 이상 적임을 고려하여[19] 표본크기를 산출했을 때 100-250개의 표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탈락을 고려하여 3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

지는 총 278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총 266부의 설문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266개의 자료는 요인분석을 위해 충분한 표본크기로 판단된다.

2.3 연구 도구

2.3.1 자살극복력

자살극복력 도구(SRI-25)는 Osman 등[17]이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사정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내적 보호, 외적 보호, 정서적 안정의 하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보호(internal protective)는 자기 자신과 삶의 만족에 대한 신념 혹은 감정을 측정하는 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외적 보호(external protective)는 개인이 어려움이나 자살사고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외부 자원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8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또한 정서적 안정(emotional stability)은 우울증상이나 대인관계에서의 거절과 같은 감정적 혹은 심리적 스트레스 사건에 부딪혔을 때 자살과 관련된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념을 측정하는 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각 문항은 6점 척도이며(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6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위험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2.4 연구 절차

2.4.1 도구번역

SRI-25 개발 연구의 교신저자인 Gutierrez박사와 이메일 교신을 통해 번역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Personal communication, May 19, 2012).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도구 변안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전문 번역기관에 의뢰하여 원본 영문 도구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그 후 연구자가 한국어판 도구에서 번역의 정확성과 문화적 차이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항 표현의 의미 차이가 모호했던 15번과 17번이 수정되었다. 번역의 검증에 위해 수정된 한국어판 도구를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이중 언어 사용자가 영어원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로 역 번역하였다. 이를 역 번역자와 연구자들이 함께 원 도구와 비교하여 설문 문항의 의미가 바르게 전달되었는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확인 및 정렬작

업을 거친 후 한국어판 자살극복력 도구의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2.4.2 예비조사를 통한 도구의 수정·보완

번역된 한국어판 설문지를 전북소재 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번역된 문항의 명확성, 이해의 용이성, 설문 용이성, 도구 형식의 적절성을 확인하였고 예비조사결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어 최종 한국어판 도구를 완성하였다. 한국어판 도구의 문항 수와 척도의 형태는 원 도구와 동일하며, 측정방법은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의 Likert식 6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였다.

2.5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였고, 2013년 2월 이전에 수행된 연구로 연구윤리심사가 필수 사항이 아니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원이 설명문과 동의서가 포함된 설문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및 연구윤리적인 면을 설명하고 자료수집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설명문에는 연구 참여 과정에서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고, 연구 자료는 정해진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기술하였다. 설명문을 읽고 서면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들은 설문내용의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설문지 수거용 상자에 넣도록 하였다. 이때 연구동의서는 연구동의서 수거함에 따로 넣도록 하여 자료의 익명성을 유지하였다. 모든 설문지에는 대상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모든 자료의 비밀보호가 유지되도록 처리하였다.

2.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20.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구성타당도 검정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이 실제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절대 적합도 지수는 χ^2 통계량인

데 $p \geq .05$ 일 때 적합도가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20]. 그러나 표본 수가 커지면 p 값이 .05 이하로 유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21], 본 연구에서는 χ^2 통계량 이외에도 표본크기와 비교적 독립적이고 모델과 데이터 간의 적합도를 나타내주는 평균제곱잔차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근사오차 평균제곱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RMR은 데이터에 의해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분산/공분산의 크기로 .05이하이면 바람직하고, GFI는 입력 공분산행렬내의 분산/공분산이 추정공분산행렬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90이상이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모델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GFI를 자유도에 의해 조정한 지수인 AGFI 역시 .90이상이면 적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20]. 그러나 GFI와 AGFI는 표본 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를 이용하는데 비록 GFI와 AGFI의 값이 .90 이하 일지라도 CFI 값이 .90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적합도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22]. RMSEA는 표본의 크기나 측정변수들의 수에 따라 쉽게 적합도가 낮게 나올 수 있는 χ^2 통계량의 한계점을 극복한 지수로 χ^2 통계량을 자유도와 표본의 크기로 조정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05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델, .08이하이면 적절한 모델, .10이상이면 적합도가 나쁘다고 할 수 있다[23].

마지막으로 신뢰도 검정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특정 문항과 다른 문항들과의 상관성을 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는 적어도 .6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4].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자살극복력 특성 분석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20세였고, 90.2%가 여성이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70명(26.3%), 2학년 41명

(15.4%), 3학년 82명(30.8%), 4학년 73명(27.4%)으로 58.3%가 임상실습 유형험자이었다.

한편, 대상자의 자살극복력의 평균 점수는 4.64점이었다. 또한 하부 척도별 평균 점수는 내적 보호 4.32±0.77점, 외적 보호 4.85±0.75점, 정서적 안정 4.78±0.74점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6)

Variables		n (%)	Mean±SD
Age (yr)			22.20±2.64
Gender	Female	240 (90.2)	
	Male	26 (9.8)	
Grade	1	70(26.3)	
	2	41(15.4)	
	3	82(30.8)	
	4	73(27.4)	
Religion	Yes	150(57.1)	
	No	114(42.9)	
Practical experience	Yes	155(58.3)	
	No	111(41.7)	

* Missing responses excluded

3.2 SRI-K의 타당도 분석

SRI-K(The Suicide Resiliency Inventory-

Korean version; SRI-K)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도구 개발 시 확인된 3요인 구조에 대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 문항별 요인적재량을 분석한 결과 요인적재량은 .40 이상이어야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는데[20], 6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40이상 (Range=.442~.767)이었고 요인적재량이 통계적으로 유의($t > 1.96$)한 것으로 나타나 구성타당도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다[Table 2].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평가에서도 전체 25문항으로 이루어진 모델 1에서는 χ^2 통계량이 $< .001$, RMR .068, GFI .782, AGFI .740, CFI .868, RMSEA .089로 전체 지표에서 기준에 못 미쳐 적합하지 않게 나타났다[Table 3]. 이에 .40미만의 요인적재량을 나타낸 6문항을 차례로 제외하며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를 χ^2 통계량이 $< .001$, RMR은 .044, GFI는 .828, AGFI는 .781, CFI는 .901, RMSEA는 .078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높여 구성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요인적재량이 .40미만으로 낮게 문항은 ‘내적 보호’ 영역에 속한 9번(.333), 19번(.199) 문항과 ‘외적 보호’ 영역에 속한 3번(.244), 6번(.242), 16번(.375) 문항, ‘정서적 안정’ 영역의 4번(.168)문항이었다.

Table 2. Summary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RI-K

(N=266)

Factor	Item	Factor loading	
		Model 1	Model 2
Factor 1†	1. I like many things about myself	.617	.631
	2. Most of the time I am happy	.641	.648
	5. I like myself	.688	.699
	9. Most of my goals are reasonable	.333	
	11. I am satisfied	.777	.767
	13. I am proud of my good qualities	.634	.643
	19. I feel emotionally strong	.199	
	20. I am happy regardless of problem	.458	.442
Factor 2†	25. I feel cheerful	.458	.455
	3. People close would listen if I were suicidal	.244	
	6. I could openly discuss suicidal thoughts	.242	
	7. I can find someone for support	.490	.471
	15. I can ask for support if suicidal	.667	.639
	16. I can ask for support even if people are angry with me	.375	
	17. I can find help if I am suicidal	.687	.705
	21. If I am in trouble I can find help	.572	.577
Factor 3†	22. Close friends or family would help me if suicidal	.591	.626
	4. I can deal with rejection	.162	
	8. I can resist thoughts of suicide	.618	.618
	10. I can resist suicidal urges when sad	.702	.704
	12. I can resist suicidal thoughts when in a difficult situation	.729	.732
	14. I can control suicidal urges when criticized	.504	.502
	18. I can handle suicidal thoughts when lonely	.591	.596
	23. I can resist suicidal thoughts when humiliated	.636	.635
	24. I can resist suicidal thoughts when feeling hopeless	.724	.723

† Factor 1=internal protective, Factor 2=external protective, Factor 3=emotional stability

Table 3. Model fitness test results

(N=266)

			Goodness of fit indices						
			$\chi^2(p)$	df	RMR	GFI	AGFI	CFI	RMSEA
SRI-K	IP†	Model 1 (25 items)	839.539 (<.001)	272	.068	.782	.740	.868	.089
	EP†	Model 2 (19 items)	511.136 (<.001)	149	.044	.828	.781	.901	.078
	ES†								

† IP=internal protective, EP=external protective, ES=emotional stability

한편 요인적재량이 .40이상이나 비교적 설명력이 낮은 문항인 20, 25, 7번을 차례로 제외하며 모델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19개 문항인 모델 2의 적합도 지수와 비교해 볼 때 개선된 값의 차이가 매우 미미하였다. 따라서 이 3문항을 제외하는 것이 전체 모델의 적합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이 3개의 문항을 제외하지 않고 총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모델 2를 최종모델로 선택하였다.

한편 요인적재량이 .40이상이나 비교적 설명력이 낮은 문항인 20, 25, 7번을 차례로 제외하며 모델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19개 문항인 모델 2의 적합도 지수와 비교해 볼 때 개선된 값의 차이가 매우 미미하였다. 따라서 이 3문항을 제외하는 것이 전체 모델의 적합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이 3개의 문항을 제외하지 않고 총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모델 2를 최종모델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지된 모델2에서 각 문항과 해당 요인 간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와 각 요인 간 상관계수 추정치는 Fig. 1과 같다. 각 요인들과 해당 문항들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는 내적 요인의 경우 .665~.876, 외적 요인은 .686~.840, 정서적 안정의 경우 .708~.855로 모든 추정치들이 높은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각 문항들 모두 해당 요인들에 대한 타당한 지표임을 시사한다.

또한 SRI-K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SRI-K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판별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도구의 하위 요인 간 상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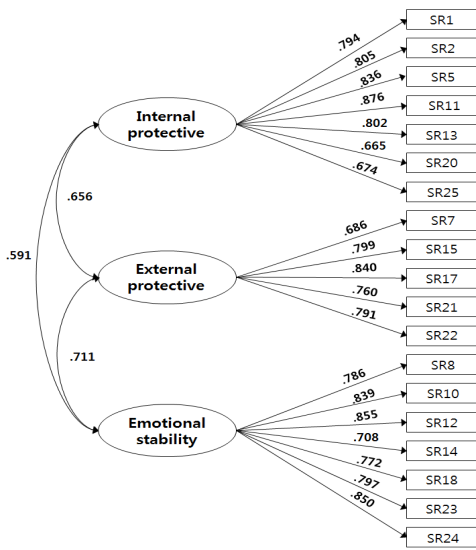


Fig. 1. Standard estimates of SRI-K.
오차변량 추정치는 생략하였음.
모든 수치는 $p < .001$ 에서 유의하였음.

계가 .85보다 작아야한다[25]. 하위요인인 내적 보호와 외적 보호, 정서적 안정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591 ~ .711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3 SRI-K의 신뢰도 분석

구성타당도가 확인된 SRI-K의 총 19문항을 포함하여

Cronbach's α 값으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SRI-K의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943이었고, 각 하위영역의 Cronbach's alpha 값은 .881~.926이었다. SRI-K의 전체 평균은 4.64이며, 각 하위영역별로는 '내적보호' 4.32, '외적보호' 4.85, '정서적 안정' 4.78이었다[Table 4].

4. 논의

SRI-25는 자살행위를 막는 보호요인들 중 하나인 극복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개인의 강점과 자원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우울이나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자살 관련 측정도구와 차별화된다[26].

본 연구는 다수의 대학생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판 자살극복력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의 개수나 구조에 대한 특별한 가정 없이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탐색하여 관심 있는 가설이나 모형 및 구조 등을 생성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모든 요인들이 서로 상관되어 있지 않거나, 상관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해야 하며, 특정 측정변수를 특정요인에

Table 4. Reliability coefficients for SRI-K subscales (N=266)

Subscale	Item	Cronbach's α	Cronbach's α if subsclae item deleted	Cronbach's α if total item deleted	Mean \pm SD
Internal Protective	1	.914	.898	.940	4.32 \pm 0.77
	2		.897	.939	
	5		.895	.939	
	11		.889	.938	
	13		.898	.939	
	20		.912	.941	
External Protective	25	.881	.910	.941	4.85 \pm 0.75
	7		.874	.940	
	15		.848	.940	
	17		.836	.939	
	21		.858	.939	
Emotional Stability	22	.926	.855	.939	4.78 \pm 0.74
	8		.915	.939	
	10		.909	.939	
	12		.907	.938	
	14		.922	.941	
	18		.914	.939	
	23		.912	.939	
Total		.943			4.64 \pm 0.64

배정하거나 다른 요인에 배정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27]. 이러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제한점 때문에,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이미 개발된 도구의 경우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 당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공통 요인을 추출하고,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미국에서 개발되어 표준화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자살극복력 측정도구인 SRI-25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특히 원 도구인 SRI-25의 요인구조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절대적합지수(χ^2 , RMR, GFI, RMSEA), 증분적합지수(CFI), 간명적합지수(AGFI)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25문항으로 이루어진 모델 1은 χ^2 통계량이 <0.001, RMR .068, GFI .782, AGFI .740, CFI .868, RMSEA .089로 지수가 권장수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일 적합지수에만 의존하여 모형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몇 개의 적합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27], 모형 적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요인적재량이 .40미만인 6문항을 제외한 총 19문항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을 최종 확정하였다. 즉, 25문항의 3요인 모델은 적합도가 좋지 않았으나 수정된 19문항의 3요인 모델은 적합도가 비교적 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내어 수정된 3요인 모델이 더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국어판 SRI는 원 도구와 마찬가지로 ‘내적 보호’, ‘외적 보호’, ‘정서적 안정’이라고 하는 3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어판 SRI의 3요인들 각각에 상응하는 하위척도들과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검토한 결과, 3가지 하위척도들은 모두 비교적 적절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으며 전체 척도 역시 적절한 내적 일치도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χ^2 통계량, RMR, GFI, AGFI, RMSEA, CFI는 각각 <0.001, .044, .828, .781, .901, .078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나의 목표는 대부분 합리적이다.’, ‘나는 감정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자살하려는 충동을 보이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이다.’, ‘나는 자살에 관한 생각을 숨김없이 의논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낼지라도 도와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견딜 수 있다.’ 문항은 요인적재량이

.40미만으로 제외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자살을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면, 우울증이 만들어내는 병적 태도로 자살과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과의 높은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그 치료방법으로는 여전히 약물복용을 비롯한 전문가에 의한 치료보다는 자가 치료 혹은 가족의 보살핌을 호소하는 경향이 높고 개인의 나약한 의지 혹은 책임 회피로 귀결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28]. 본 연구결과에서 제외된 문항은 대부분 외적 보호요인과 관련된 문항으로 자살을 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차원에서 극복해야 하는 사안으로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특히 ‘나의 목표는 대부분 합리적이다.’, ‘나는 감정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견딜 수 있다.’ 문항은 본 연구와 우리나라 서울지역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극복력을 조사한 연구[18]에서 동일하게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자살은 비합리적인 내적 사고의 결과이며, 스스로 감정적 자기 통제의 실패로 충동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유교적 문화에서 자살은 역사적·사회적·윤리적으로 명분 있는 의지적 죽음을 용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29], 유교사상이 저변에 깔린 한국 사회에서 자살은 때때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체제에 대한 저항, 도덕적 고발의 수단 혹은 정치적 선언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한국 자살의 인류학적 특징[28]의 한 면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최종 선정된 총 19문항에 대해서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943로써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인 .96과 유사하였다. 요인별로는 ‘내적보호’ .914, ‘외적보호’ .881, ‘정서적 안정’ .926으로, 239명의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구 개발 당시의 연구[26]에서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 값이 .86~.92로 보고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SRI-K의 평균점수는 4.64±0.64점으로 미국 대학생 239명을 대상으로 한 Rutter 등[26]의 연구 결과인 5.24±0.70점에 비해 낮은 결과이다. 또한 하위영역에서도 내적 보호, 외적 보호, 정서적 안정이 각각 평균 4.32±0.77점, 4.85±0.75점, 4.78±0.74점으로 Rutter 등[26]의 연구에서 보고된 5.00±0.80점, 5.30±0.78점, 5.50 ±0.78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역 소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는 평균

4.62±0.67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SRI-K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미국보다 3배 정도 높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 평균 6.6% 보다 낮은 6.0%로 보고된 결과[3]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Rutter 등[26]의 연구에서도 아시안계 대학생의 SRI-25의 평균점수가 4.94±0.74점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낮고,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극복력은 높은 자아존중감으로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30]. 개인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독립적 자아성향인 서양인은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근거를 삼는 반면, 대체로 집단주의적이고 상호의존적 성향을 지닌 동양인은 대인간 연계성을 강조하며 자기표현에 있어서 자기조절과 억제 및 사회 맥락과의 조화 유지 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평가하는[31]이해의 개념들이 반영되어 자살극복력 수준이 다른 서양문화권보다 낮게 측정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는 수직-집단주의 문화에서 수평-개인주의적인 문화로 변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31] 향후 자살극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성과 자기표현의 유능함, 외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로움 등 자율적 주체로서의 독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SRI-K는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타당성과 신뢰성을 지닌 도구임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SRI-K 문항분석 결과, 원 도구의 25문항에서 요인적재량이 .40 이하인 6문항이 제외되어 이 문항에 대해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선정이 편의표출에 의해 진행되어 표적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발달단계별, 성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확대연구를 통해 한국어판 SRI 도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살극복력 측정도구인 SRI-25가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함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미국

에서 개발된 SRI-25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19개의 문항과 3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된 SRI-K가 신뢰도가 높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한 타당도가 적절하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살극복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된 SRI-K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사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생의 자살극복력 수준을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극복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을 측정하려는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도구를 활용하여 자살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도구를 활용하여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상호 중재안 개발과 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일 지역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추후 다양한 대상자에게 SRI-K를 적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Cause of death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bSeq=&aSeq=330183, (accessed April, 10, 2014).
- [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ealth statistics, 2014", Available from <http://www.oecd.org/health/health-systems/oecd-health-statistics-2014-frequently-requested-data.htm>, (accessed May, 16, 2015).
- [3]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dolescents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287091, (accessed April, 10, 2014).
- [4] E. H. Kim, H. H. Shim, "A type behavior pattern,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5), pp.2659-2671, 2013.
- [5] C. R. Ra, C. Lee, J. Seo, J. Choi, M. You, "Factors affecting suicide ide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0(1), pp.1-11, 2013. DOI: <http://dx.doi.org/10.14367/kjhep.2013.30.1.001>
- [6] G. Lee, "Factors influencing attempted suicide among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5), pp.3139-3147, 2015.

- [7] S. W. Kim, J. M. Kim, I. S. Shin, J. S. Yoon. "Suicide and crisis intervention",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5(4), pp.341-348, 2012.
DOI: <http://dx.doi.org/10.5124/jkma.2012.55.4.341>
- [8] D. S. Park,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of health college students on their suicidal ideation: control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2), pp.728-736, 2013.
- [9] L. Pollock, J. Williams, "Problem-solving in suicide attempters", *Psychological Medicine*, 34(1), pp.163-167, 2004.
DOI: <http://dx.doi.org/10.1017/S0033291703008092>
- [10] J. Fitzpatrick, "Preventing suicide: developing meaning in life",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3(4), pp.275-276, 2009.
DOI: <http://dx.doi.org/10.1016/j.apnu.2009.06.002>
- [11] M. M. Linehan, J. L. Goodstein, S. L. Nielsen, J. A. Chiles, "Reasons for staying alive when you are thinking of killing yoursel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2), pp.276-286, 1983.
DOI: <http://dx.doi.org/10.1037/0022-006X.51.2.276>
- [12] A. Osman, P. M. Gutierrez, B. A. Kopper, F. X. Barrios, C. E. Chiros, "The positive and negative suicide ideation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82(3 Pt 1), pp.783-793, 1998.
DOI: <http://dx.doi.org/10.2466/pr0.1998.82.3.783>
- [13] G. W. Lee, M. H. Hyun, S. J. Lee,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5(2), pp.227-242, 2010.
DOI: <http://dx.doi.org/10.17315/kjhp.2010.15.2.004>
- [14] J. H. Park, H. N. A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2(2), pp.113-133, 2014.
- [15] S. S. Luthar, D. Cicchetti, B. Becker,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pp.543-562, 2000.
DOI: <http://dx.doi.org/10.1111/1467-8624.00164>
- [16] G. Y. Kim, S. J. Cho,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on suicidal ideation, and the suicide prevention-based on external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5), pp.2131-2139,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5.2131>
- [17] A. Osman, P. M. Gutierrez, J. J. Muehlenkamp, F. Dix-Richardson, F. X. Barrios, B. A. Kopper, "Suicide resilience inventory-25: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properties", *Psychological Reports*, 94(3 Pt 2), pp. 1349-1360, 2004.
DOI: <http://dx.doi.org/10.2466/PR0.94.3.1349-1360>
- [18] K. Cho, "Validation of suicide resilience inventory-25.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ling psychology, Seoul, Korea, 2012.
- [19] C. S. Ryu, "SPSS 14.0 for windows, (5th ed)", Elite, Seoul, Korea. 2006.
- [20] J. F. Hair, R. L. Tatham, R. E. Anderson, W. Black,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United States of America. 1998.
- [21] E. Cho, M. Choi, E. Y. Kim, I. Y. Yoo, N. J. Lee.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nursing work index for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3), pp.325-332, 2011.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1.41.3.325>
- [22] P. M. Bentler,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pp.238-246, 1990.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107.2.238>
- [23] M. W. Browne, R. Cudeck,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pp.230-258, 1992.
DOI: <http://dx.doi.org/10.1177/0049124192021002005>
- [24] J. Nunnally, I. Bernstein, "Psychometric theory, (3rd ed)", McGraw-Hill,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1994.
- [25] P. A. Rutter, S. Freedenthal, A. Osman, "Assessing protection from suicidal risk: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uicide resilience inventory", *Death Studies*, 32(2), pp.142-153, 2008.
DOI: <http://dx.doi.org/10.1080/07481180701801295>
- [26]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ress,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1998.
- [27] H. S. Kang, "A guide on the use of factor analysis in the assessment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5), pp.587-594, 2013.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3.43.5.587>
- [28] H. J. Le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suicide phenomena and the possibility of anthropological research",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Cultural Anthropology*, 43(1), pp.307-324. 2010.
- [29] Y. K. Lee, "The problem of korean suicide and confucian thoughts", *Journal of Koreanology*, 52, pp.163-200, 2014.
DOI: <http://dx.doi.org/10.15299/jk.2014.08.52.163>
- [30] M. Place, J. Reynolds, A. Cousins, S. O'Neill, "Developing a resilience package for vulnerable childre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7(4), pp.162-167. 2002.
DOI: <http://dx.doi.org/10.1111/1475-3588.00029>
- [31] Y. H. Han and J. K. Chung, "Two-factor self-esteem scale: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factor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1(4), pp.117-131, 2007.

노 준 희(Jun Hee Noh)

[정회원]



- 200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

장 수 정(Soo Jung Chang)

[정회원]



- 2005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간호, 기본간호, 요양시설실무

김 성 은(Seong Eun Kim)

[정회원]



- 2007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간호윤리